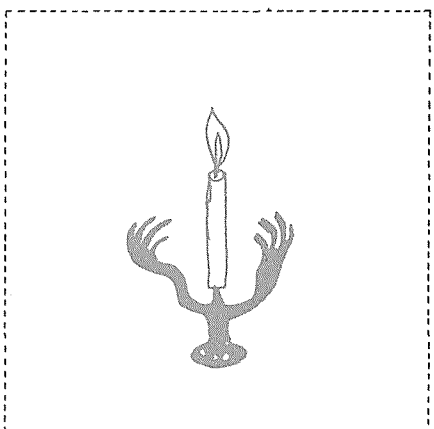
□ 資料 □

고도화 脫石油 政策이 에너지 構造의 硬直化를 가져온다

—日本의 정책실패를 중심으로—



LNG 가격상승으로 경쟁력 상실

日本이 LNG를 처음 도입할때만 해도 通産省은 LNG가 原油보다 30%나 비싸다며 도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석유파동 이후 通産省은 태도를 바꾸어 LNG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69년도의 최초 도입량이 연간 18만톤이었던 것이 82년도에는 1천 769만톤으로 무려 100배나 증가하였다. 83년도로 계약이 끝나는 LPG프로젝트는 3천 690만톤에 달해, 검토중인 것까지 합하면 5천 540만—5천 740만톤이나 된다.

작년도 종합에너지 조사회의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에 의하면, LNG 수요는 90년도에 3천650만톤, 95년도에 4천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83년도까지 도입된 2천 816만톤중 전력업계가 2천 143만톤, 가스 및 철강업계가 673만톤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금세기말에 LNG의 신규도입 여지는 없게되어 과잉계약을 한 결과가 된다. 당초 86년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산 LNG 584만톤을 88년도로 연기한 사실이 LNG 수요 과잉 책정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LNG는 무공해 에너지이지만, 석유대체 에너지로서는 산업용, 전력용의 重油, 산업용, 난방용의 등유, 경유등 중간유분·중질유분과는 대체할 수 있으나, 휘발유등의 경질유분과는 대체할 수 없다.

日本의 LNG수요중 4분의 3이 전력, 나머지가 도시가스용이다. 이미 도시가스 분야를 침식한 산업용 LNG가 이제는 등유·경유 B—A油 등을 침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다.

OPEC는 80년 5월 총회에서 天然가스 가격은 열량환산으로 원유가격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日本이 LNG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차석유파동 이후 원유가격이 상승하여 原油 가격대비(열량환산) 80%이던 LNG 가격이 80년 5월 OPEC 총회의 결의에 따라 94%로 원유와 거의 같은 가격수준이 되었다.

CIF 수입가격 자체도 LNG가 1천킬로카로리당 4.65엔으로 原油 4.72엔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100만BTU 당으로는 5달러가 되어 네덜란드가 주변제국에 공급하는 가격(3.50—3.69

달러)과 소련의 유럽공급가격(3.50달러), 캐나다의 美国공급가격(4.40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이다. 通産省의 조사로도 LNG 화력발전은 1Kw/h당 17엔으로 석유화력과 대등한 가격이다.

석유로도 무공해 重油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공해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해도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LNG 도입계약에 있어서 不稼動코스트 보상(Take or Pay조항)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LNG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代替에너지로서 특별한 이점도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가격이 비싼 LNG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日本의 에너지 가격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은 通産省이 LNG를 중요 대체에너지로 간주하여 계약이 경직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이다.

通産省은 85년도에 「재단법인 지방도시가스 사업 天然가스 촉진센타」(가칭)를 설립하여 지방 중소가스회사에 LNG의 도입촉진을 꾀할 방침이다.

LNG로 전환하는 지방도시 가스회사에는 석유 특별회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지방도시 가스회사들은 LPG나 나프타를 원료로 하고 있으나, 通産省은 행정지도에 의해 LNG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 가스회사가 과잉계약한 LNG를 행정력으로 처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기존원료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을 침식당하고 있는 LNG 업계나 석유업계에서도 이같은 에너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터무니 없는 石炭 수급정책

日本의 일반탄 수입량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79년도에 141만톤, 80년도에 522만톤, 81년도에 1천 164만톤, 82년도에 1천 359만톤으로 3년사이에 약 10배나 급증하였다.

지난 해의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에서는 90년도의 一般炭 수입량을 4천 300만톤으로 보고 있으나, 82년 4월에 작성한 전망에서는 6천 600만으로 되어 있었다.

日本 에너지 경제연구소는 작년 5월에 발표한 전망에서 3천 400만톤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전력업계가 작성한 석탄 소비량 전망에서는 一般炭 소비가 2천 600만톤으로 여기에는 약 1천만톤의 국내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탄은 1천 600만톤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로 추정해 보더라도 90년도의 일반탄 4천 300만톤의 수입은 과다한 전망에서 나온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石炭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나 美国은 82년도 당시에 종합 에너지 조사회가 발표한 6천 600만톤이라는 숫자를 신용하여 공급체제를 정비하였다.

지난 10월 하순에 日本을 방문한 오스트레일리아 자원 에너지相은 『과대한 수요전망 발표는 자원수출국이 과대개발을 하여 물량이 남아돌 때 값싸게 도입하려는 日本의 술책이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차 석유파동 이후의 석탄 붐에 따라 적극적으로 석탄 공급력을 증강해 왔으나, 日本의 철강산업 불황 및 전력업계의 LNG 우선주의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美国측에 대해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책으로서 알래스카 原油의 수입의향을 보였으나, 美国측은 반대로 동부탄의 수입과 알래스카 LNG의 개발협력을 들고 나왔다.

원료탄과 一般炭을 합한 美國炭의 수입점유율은 80년에 29.7%이었던 것이 83년에는 22.5%로 감소한 반면 오스트레일리아탄의 점유율은 44.6%에서 51%로 증가하였다.

美国炭은 오스트레일리아탄 보다 1톤당 약 10달러가 비싸지만, 美国측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비싸더라도 수입량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本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일 석탄무역 발전에 노력할 것을 표명하고 전력업계로 하여금 이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력업계의 실정으로는 금년도 계약량을 계약보다 40% 정도 줄여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通産省에서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환태평양권 석탄 무역구상」을 제창하고 있다. 잉여 석탄을 아시아 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美国이나 오

에너지원별 일본의 발전비용

(單位 : ¥/Kwh)

에너지원 / 회계연도	원자력	화력		
		석탄	석유	LNG
1980	9	12	18	16
1981	11~12	14~15	19~20	17~18
1982	12	15	20	19
1983	13	14	17	17

〈資料〉 AP-DJ

스트레일리아로 부터의 도입책임을 돌려보자는 구상이다. 日本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공해방지기술의 제공, 석탄수송선의 건설면에서 아시아 제국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석탄 콤비나트」를 조성하여 석탄항만 주변에 철강, 화학, 시멘트, 섬유, 종이업계 등의 석탄소비 기업군을 집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석탄 에너지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 석탄을 소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政策수정 않으면 에너지 경쟁서 처져

LNG와 석탄은 모두 석유파동 이후 당장의 에너지 정세에 휩싸인 정책입안 때문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수급 중심주의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과잉시대, 에너지 자유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언제까지나 에너지 핍박시대의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日本의 에너지 구조는 경직화 될 수 밖에 없고, 높은 에너지 코스트로 안정을 꾀한다는 결과가 된다. 지금이야말로 종래의 에너지 수급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정, 새로운 정책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日本의 에너지 정세는 LNG와 石炭에 발목을 잡혀 에너지 자유경쟁시대에 뒤지게 될 것이다. *

〈日本, 순간에너지정책〉

□ 産油国動向 □

GCC, 迅速配置軍 創設키로

페르사湾 協力協議会(GCC) 6개국 頂上들은 29일 GCC회원국에 대한 어떠한 외부 공격에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신속배치군(RDF)의 창설에 합의하고 会員国들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이라크戰의 종식을 위해 최대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閉幕聲明을 채택한 뒤 3일간 非公開로 열린 第5次 GCC 頂上会談을 끝마쳤다.

비사라 GCC 事務總長이 발표한 폐막성명은「이번 頂上会談이 이란—이라크 당사국은 물론 隣近 回教国들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양국간의 전쟁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GCC 会員国들의 계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UN과 回教会議機構(ICO) 非同盟国家들이 주도하는 이란—이라크戰 종전 노력을 적극 지지」함을 강조하고 있다.

会談이 폐막된 후, 1시간이상 계속된 記者会見에서 Sheik Sabah 쿠웨이트 外相은 새로 創設될 GCC 신속배치군은 단지 GCC 국가에 대한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GCC 역내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사우디에 本部를 두고 「限定된 期間」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CC頂上들은 또 페르사湾의 항해안전과 GCC회원국들의 독립 및 지역안보를 보장하도록 촉구한 82년 6월 UN安保理決議 552號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사태 등의 아랍정세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頂上会談은 내년 11월 오만의 Muscat에서 개최된다.